

## 에너지 테라피의 이해 2

| 김성호 원장, 고희정 교수 |

지난호 '에너지 테라피란 무엇인가'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에너지 테라피에 대한 현대물리학적 관점을 살펴봅니다(편집자 주)



## 에너지 테라피에 대한 현대 물리학적 관점

고전 물리이론 중의 하나인 관성의 법칙은 의식에도 동일한 원리로 작용하는 것 같다. 그 하나의 예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에너지 테라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다. 에너지 테라피를 대하는 편견은 비단 일반인들만이 아니라 의료인, 아니 대체의료에 종사하는 치료사 자신들까지 비합리적인 영역으로 인식하여 경원시하여 왔다. 그러나 의료인들이 이러한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강하게 배척하고 있는 동안 외부적인 동요가 조용히 의료의 외곽에서 진행되고 있다. 외부적인 힘은 다름 아닌 정통의료의 존립근거인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우주에 대한 지식의 성장이다.

현대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적 소양으로 양분된 지식체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많은 현자들은 과학자이면서 또한 철학자이며 예술가였다. 이제 극단적인 대립의 양극선상에서 인식의 반환점을 돌아 서로를 바라보게 된 일부 지식인들은 서로를 보완할 때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인식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구름 속 실체를 파악하려면 외나무보다는 사다리를 오르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한 이들은 아마도 물리학자들인 것 같다. 데카르트(Rene Descartes)에 의하여 마음이 분리된 물질관은 뉴턴(Issac Newton)에 이르러 인과론적 결정론을 낳았다. 원인이 되는 초기 조건을 알면 미래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는 물질론적 자신감은 모든 객관적 실상에 대하여 1:1의 대응관계를 갖는 물리이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모든 심리적 현상들을 물질이라는 실체의 부대현상 쯤으로 파악하고 삼차원의 세계에 놓여진 물질

적 경계만을 정복하려던 의욕적 행진은 곧 눈앞에 펼쳐진 혼돈의 다차원적인 안개 속에서 길을 잃게 되었다.

고전 물리학의 비행기를 현대 물리학이라는 타임머신으로 갈아타게 된 전환점의 가장 두드러진 축은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이다. 우주에는 절대 좌표계가 없으며 위치나 운동이 상대적인 차이에 의해 감지된다는 상대성이론은 우리가 측정하는 모든 현상세계의 지도를 중첩된 시간과 공간의 초월지도로 다시 그려야 하는 과제를 던져주었다. 또한 양자역학은 물질이면서 동시에 파동인 이율배반적인 소립자의 존재원리를 밝혀냄으로써 실상과 허상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제 서양에서부터 새로운 차원의 의식의 동조화가 시작되었다. 공(空)과 색(色)을 동일시하는 동양적 사유가 오히려 서양인들의 실증적 관찰로 다방면에서 증명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불어오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대체의학은 이러한 초연적인 인식의 변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모든 참살이적 행위는 이제 치료라는 단어만 붙이면 새로운 복합명사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

지난 수백 년간 기존의 제도권 의학에서 이루어지던 치료 행위를 제 1의 의학 이라고 한다면 한의학이나 현재 유행하는 많은 대체의학의 범주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치유적이며 전인적인 치유법들은 제 2의 의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제 3의 의학이 새롭게 태동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정보에너지 의학이다. 정보와 에너지를 조절함으로써 치료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에 접근하려는 과학적인 시도가 미래 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갖는 치유력을 믿는다. 또한 부드러운 포용이 갖는 심신의 안정과 만족감을 충분히 알고 있다. 미소의

치유력, 평화의 치유력, 밝은 색채의 치유력, 나무의 치유력, 기도의 치유력, 향기의 치유력, 춤의 치유력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친절한 의사로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러한 치유력의 원천은 이들이 모두 좋은 정보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정보에너지의 치유력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치유력을 제도권 의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것은 그러한 힘은 단지 보이지 않는 도우미로서의 에너지에 불과하므로 현대적인 질병의 문제를 다스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에너지 테라피<sup>1)</sup>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에너지 테라피는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고전적 의미의 소극적인 치유력을 넘어서서 제 3의 의학, 즉 정보에너지 의학의 일환으로서 전면에 나설 준비를 하여야 한다. 이미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이루어 내는 경이적인 치유력을 많은 곳에서 실험으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실증적 측면보다는 현재의 자연과학이 이루어 낸 지식의 지평 위에서 존재의 초월적 실상을 새롭게 바라봄으로써 그러한 인식전환의 계기를 삼고자 한다.

4차원의 세계인식이 난해한 우리에게 과학은 11차원의 세계를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믿는 세계는 고작 3차원의 세계인식에 머무르고 있다. 과학적 인식을 절대 지표로 삼는 현대인이 과학에서 주장하는 다차원적 존재의 실상을 외면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과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에너지 테라피는 기적이라고 하기 보다는 새싹을 틔우는 나무의 생명력과 크게 다르지 않다.

---

1) 에너지 치료의 방법은 에너지 치료사가 방출하는 치료 에너지 뿐 아니라 동일한 성질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기계 장치까지 포함하지만 여기서는 에너지 치료사의 치료 에너지에 대한 고찰에 한정하였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자신의 영역 밖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식하는 의료인과 새로운 지평을 함께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많은 환자들이 이 신선한 흐름에 하루빨리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새로운 차원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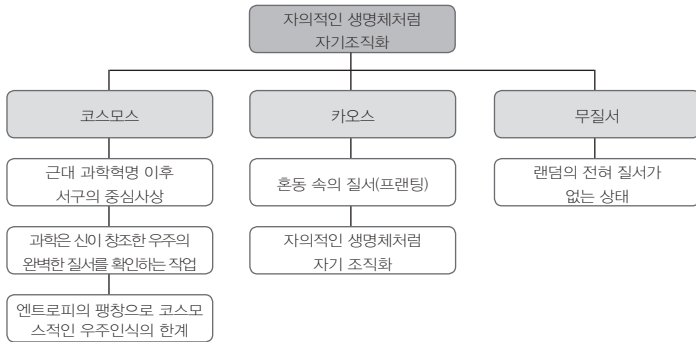


그림 1. 우주에 대한 과학의 인식

근대 과학혁명 이후 서구 사회를 주도한 중심 사상은 신(神)이 창조한 우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서 정연한 법칙 하에 운행되며 과학적인 추구는 그 법칙을 확인시키는 작업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코스모스적인 우주인식은 사회적 엔트로피의 급격한 증가로 우주와 우리들 주변에 산재한 복잡한 현상들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지식과 정보의 수직적인 상승곡선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다다른 것은 인식의 눈에 드러난 수많은 미로와 그것을 설명할 규칙성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질서와 혼돈을 의미하는 개념으로서의 카오스 상태를 떠올린다. 그러나 카오스는 무작위적인 전혀 질서가 없는 상태

와는 다른 개념이다. 카오스는 신적 존재의 입장에서는 최대의 가능성을 갖는 것이며 인간에게는 가장 많은 정보가 숨어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우주는 질서와 무질서 그리고 카오스의 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대적 과학의 추구는 질서 속의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앞에 드러난 새로운 목표는 아무런 규칙성도 없는 혼돈이라고 생각되는 우주의 복잡함 속에서 카오스적 질서를 도출해내는 것이다.

카오스의 정보는 자의적인 생명체처럼 자기조직화를 통하여 미시와 거시의 우주를 생멸하고 있다. 이러한 카오스는 정보에 의해 단순화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프랙탈 구조이다. 우주는 무한히 작은 것에서 무한하게 큰 것에 이르기까지 자기닮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구조는 나무, 강, 번개, 태양계와 원자, 구름과 담배 연기 등 약간만 주의를 돌리면 얼마든지 관찰할 수 있는 자연의 익숙한 얼굴이다. 카오스는 복잡한 표정을 하고 있지만 프랙탈의 성격을 찾아내어 그 특징적 구조를 반복적으로 확장하거나 축소해 나가면 쉽게 카오스의 진면목에 근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연의 자기닮음은 정확한 동일성의 닮음이 아니라 통계적인 자기닮음이다. 인공적인 자기 닮음은 틀에 박힌 자기닮음이지만 자연에는 우연성의 원리가 작용한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개입할 여지, 확률적으로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통계적 자기닮음이다. 아주 사소한 우연적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모습을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는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자기닮음의 구조는 우주 공간에 여러 가지 형태의 패턴을 만들어내며 창조와 진화의 과정에 조력하는데, 이러한 패턴의 파노라마가 안정화될 때, 준주기 어트랙터라고 하여 토러스와 보텍스 형태의 물질로 나타나게 된다.

존 휠러는 우주가 보텍스 링(Vortex ring)으로 되어있다고 하였다. 또한 벤토브(Bentov) 역시 우주의 구조가 보텍스 링과 토러스(Torus) 형태를 취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우주는 차원전환의 과정에서 다양한 에너지의 형태를 취하다가 새로운 차원으로의 진입이 안정되면 존재는 보텍스 링의 형태로 성숙하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sup>2)</sup> 이러한 과정을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의 꼬임, 뒤틀림, 진동으로 설명하고 있다. 초공간 이론에 따르면 무한히 복잡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물질과 힘들은 실제로는 서로 다른 형태를 갖는 초공간의 진동에 불과하다고 본다. 물질은 시공이 휘어지고 뒤틀리어 여러 차원으로 중첩된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진보적인 물리학의 관점을 수용할 때 우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에너지의 전변(運氣)과 전변을 가능하게 하는 이면의 법칙(理) 혹은 지성(神)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캠브리지대학의 셸드라케 박사는 DNA의 유전정보들을 결정하고 나타나도록 작용하는 유형, 즉 ‘형태 형성장場’이 있으며 이는 중국의 이(理) 개념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또한 물질적 생성과 소멸의 본질인 에너지의 전변은 블랙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호킹 박사는 우주적 차원에서의 블랙홀이 엄청난 중력으로 물질을 흡수, 방출한다는 호킹방사이론을 발표하였고, 프린스턴대학의 존 휠러는 양자역학적 공간 속에서의 미니 블랙홀을 가정하였다. 블랙홀은 에너지가 출입하

---

2) 물리학에서는 차원전환의 과정을 호프분기로 설명한다. 즉 고정점 어트랙터가 호프분기에 의해서 한계순환 어트랙터로 변하고 2차원 토러스, 3차원 토러스, 무한차원 토러스, 즉 카오스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차원전환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트랙터의 형태가 기묘한 어트랙터이고, 일정한 차원에 진입한 안정된 상태의 어트랙터의 모습은 준주기 어트랙터, 즉 토러스 모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김용운, 김용국의 프랙탈과 카오스의 세계에서).

는 웜홀(Worm hole)<sup>3)</sup>의 구조를 특징적으로 갖고 있는데 인체의 자기장과 생물의 자기장, 지구의 자기장 등 자연계의 모든 것은 이러한 블랙홀과 웜홀의 구조와 일치되는 형태의 에너지 순환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토러스와 보텍스 형태의 블랙홀 혹은 웜홀은 인체에 있어서도 유사한 모양을 관찰할 수 있는데 바로 요가에 있어서의 오라와 차크라<sup>4)</sup>의 에너지 시스템이다. 인체의 차크라는 웜홀의 구조를 갖고 있으며 블랙홀과 같이 에너지가 드나드는 통로 역할을 한다. 또한 오라는 인체 외부로 여러 층으로 둘러싸며 보이지 않는 몸을 형성하는데 우주의 안정된 에너지 형태인 준주기 어트랙터, 즉 토러스 모양을 하고 있다. 현대 물리학이론과 카발라의 생명나무<sup>5)</sup>를 인용하여 모든 거시적 우주와 미시적 우주는 아누(Anu)<sup>6)</sup>라고 하는 최소 입자의 에너지의 흡수와 방출의 형태와 동일한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문성호의 가설은 블랙홀과 차크라, 준주기 어트랙터와 오라의 이런 일치성의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 몸과 마음은 이와 같은 에너지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에너지체계의 변화는 곧 질병, 혹은 치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체계

- 
- 3) 벌레가 사과의 중심을 관통하는 길에서 유래된 말로 모든 유기체의 존재원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인체에 있어서는 수습나를 통한 차크라의 에너지 체계를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다.
  - 4) 오라는 요가철학에서의 인간의 6개의 몸(pancha kosha)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인간을 에워싼 에너지와 의식의 층을 말하는 것이며, 차크라는 오라를 통하여 우주와 소통하는 인체의 에너지와 의식의 통로로 7개의 중요한 차크라가 있다.
  - 5) 생명의 원천, 세계의 중심, 또는 인류의 발상지가 된다는 나무. 이 사상은 예로부터 메소포타미아 · 이집트 · 이란 · 인도 · 북부 유럽 · 아시아 등지의 민간 신앙 · 신화 · 전설 속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수목 숭배의 한 형식인데, 에텐동산의 선악을 아는 '지혜의 나무' 같은 것이 이에 속한다. ≡ 생명나무 · 생명의 나무 · 세계수.
  - 6) 문성호는 Anu를 쿼크의 하부입자인 프리쿼크에 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를 변화시키는 의식의 작용력이 치료 에너지이다.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자기닮음의 구조인 보텍스 링(vortex ring)과 토러스 모양의 에너지 흐름은 솔방울, 조개, 태풍, 사과, 은하계, 지문, 회오리바람, 물의 소용돌이 등의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토러스는 모든 3차원 형상의 기본이 되는 기하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에너지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 할 수 있는 가장 원형이 되는 형태이다. 카오스가 선택한 가장 안정적인 구도의 보텍스 링이 삼차원의 공간 속에서 무한대로 확장하고 무한소로 축소되는 증거의 일단을 우리는 태양계와 원자의 모습, 그리고 아누의 형태 속에서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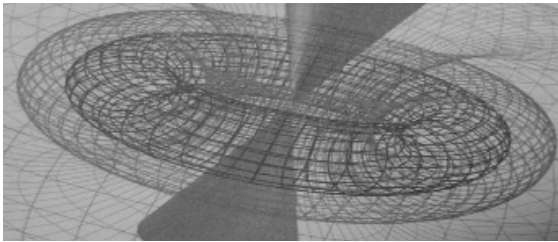


그림 2. 보텍스와 토러스(물질의 궁극원자 아누, 아람드리미디어,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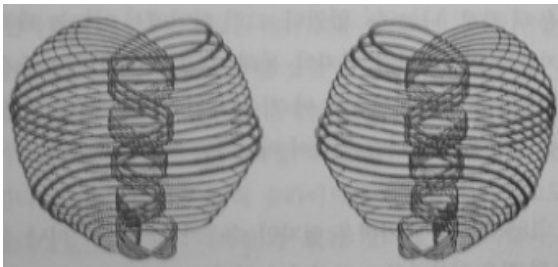


그림 3. 아누(물질의 궁극원자 아누, 아람드리미디어, 2000)

## (2) 에너지 밀도체로서의 인체

인간의 대지로서 인식되는 지구라는 별은 우주상에서 보면 한개 점에 불과하다는 것은 누구나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최소 입자로서의 전자나 원자 또한 우주의 한 점 지구처럼 허공 속을 고독하게 항해하는 알 수 없는 점이라는 것을 상기하면 우리라는 존재의 공허함에 새삼 놀라게 된다. 원자 속의 허공을 제외하고 원자핵과 전자를 한 덩어리로 뭉친다면 우리 인체의 크기는 콩 하나 보다도 작을 것이다. 더구나 콩알보다도 더 작은 덩어리를 이루는 전자와 원자가 사실은 입자로 확고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파동으로 명멸하며 찰나를 여행하는 이름 붙이기에도 허망한 존재임을 생각하면 인생이 아침이슬과 같다는 말이 단순한 은유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문성호는 우리가 딱딱한 물체라고 느끼는 돌이나 쇳덩어리도 그 부피의 99.999% 이상이 진공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어떤 사물이 물질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그 물질에 질량이 있기 때문인데 현대 물리학의 영점장 이론에서는 질량 자체를 허상으로 보고 있다. 질량은 하전 입자의 결집이 만들어낸 양자 진동일 뿐이며 이것은 에너지의 덩어리에 다름 아니다. 결국 물질은 음양의 움직임이며 상대적 에너지인 음양은 언제든지 소멸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존재는 일시적인 힘으로 나타났다가 진공 속으로 사라질 뿐이다. 우리의 존재라는 일시적인 힘의 결집체를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힘이 우주적 정보의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도영진은 그의 독특한 정기신(精氣神) 이론에서 우주의 에너지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종속에너지 밀도

체, 둘째 안정된 물질 입자를 구성하지 못하지만 종속에너지 밀도체에 인접하여 분포함으로써 물질입자와 입자와의 관계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활성에너지 밀도체, 셋째 물질입자를 구성하지 못한 에너지인 자유에너지 밀도체로 구분하였다. 우주는 끊임없는 에너지의 이합집산이 있을 뿐이며 정기신 각각의 상태는 에너지의 전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우리 몸의 질량을 이루는 에너지는 우리 자신의 에너지 밀도일 수도 있으나 인체의 체중에서 지구의 중력에너지를 제외한 실제적인 질량을 계산한다면 실로 보잘 것 없는 에너지 거품에 불과하다. 허공에 거미줄처럼 그러나 비교할 수 없이 미세하고 가늘게 드리워져 있는 인체를 구성하는 파동성 끈으로 조성된 입자들, 단지 운동 양상만이 실체인 초끈에 반사된 빛의 일곱 색깔 무지개는 우리의 붉은 입술이 되고 검은 눈동자가 되며 부드러운 피부가 된다. 이 다차원적인 우주에는 초의식적 정보가 다음 차원의 의식의 모태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위 정보는 하위차원으로 의미를 전송하고 하위차원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물질과 고유한 파동의 시공을 만들어 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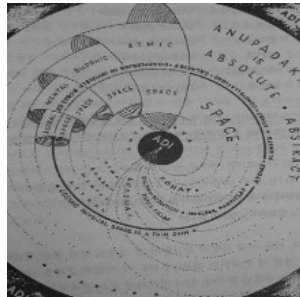


그림 4. 5. 11차원의 우주(물질의 궁극원자 아누, 아람드리미디어, 2000)

다. 초의식과 내담자의 사이에 개입하여 사랑이라는 우주 생성의 의미를 전송하는 의식이 바로 테라피스트의 치유력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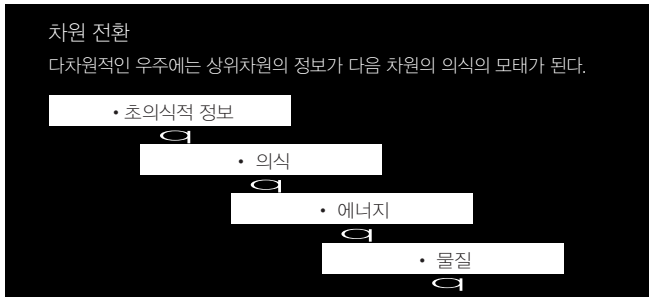


그림 6. 우주는 상위차원의 정보가 하위차원의 세계를 창조한다.

이러한 우주인식의 모형은 현실이라는 현상세계에서 보면 한 바탕의 꿈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세기를 과학을 신봉하며 지내왔으며 그 과학의 유산으로 모든 문명적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세계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실재라면, 물질이 소멸되는 플랑크 영역에서의 미시적 차원도 실재이다. 또한 플랑크 영역의 입자의 본질이 한갓 거품이라면 우리의 문명세계 역시 동일한 거품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신비주의는 없다. 과학과 신비현상은 하나의 별판에서 명멸하는 신기루이며 우리는 그 곳에 집을 짓고 거주하고 있다.

에너지 테라피스트의 치유에너지 중 하나인 생체자기에 관한 실험에서 1000분의 1 Gauss 단위의 자기가 인정되었다. 이는 심장의 자연 자기파의 1000배에 해당되며 뇌의 자기파에 비교하면 100만 배에 이르는 강력한 자기파라고 한다. 우주가 에너지 거품이며, 우리의 몸이 에너지 진동체임을 인정하고 이러한 실험결과에 주목한다면 에너지 치료의 효과에 대하여 우리는 훨씬 더 큰 기대를 하여도 될 것이다.

### (3) 정보에너지 의학(information- energy medicine)

데이비드 보姆(David Bohm)은 우주의 허공은 텅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초양자장으로 충만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아스페(Alain Aspect)에 의하여 실험적으로 증명되었다. 그는 초양자장이 중첩되어 파동이 되고, 파동이 중첩되어 에너지가 되며, 에너지가 중첩되어 소립자가 되는데 이 소립자가 의식으로 분화하거나 원자를 이루어 물질로도 분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글렌 라인(Glen Rein)은 생물을 장기, 조직, 세포, 분자 등의 눈에 보이는 몸과 원자, 전자, 양성자, 중성자, 에너지, 파동, 초양자장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몸으로 구분하고 이와는 별도의 실체로 마음의 존재를 확신하였다. 그리고 특별히 보이지 않는 육체에 대하여 정보에너지장(information energy field)이라 명명하였다. 강길전 교수는 생물에 대한 이러한 분류에 따라 육체를 다루는 의학을 생의학(bio-medicine)이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육체를 다루는 의학을 정보에너지 의학(information- energy medicine), 그리고 마음을 다루는 의학을 심성의학(mind- medicine)이라고 분류하고 있다.

강길전 교수는 또한 이를 동양의학의 정기신(精氣神)에 대입하고 있다. 정보에너지장, 즉 초양자장은 우주적 정보에 해당하며 모든 것을 생성하는 작용자의 배후에서 있는 앎의 하나 됨이므로 신(神)에 해당된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육체는 정(精)이다. 또한 초양자장이 잉태한 소립자라는 씨앗에서 육체, 즉 정과 함께 발아된 또 다른 반 육체로서의 마음은 기(氣)라고 볼 수 있다. 육체와 마음은 정(精)과 기(氣)로서 생명이 있는 동안 흥망성쇠를 함께 한다. 또한 심장의 마음, 세포의 마음, 백혈구의 마음, 분자의 마음 등 인체의 모든 요소들이 부분

으로서의 생명의 요구에 충실하며 또한 전체로서의 육체적 생명력에 협조한다.

양자장은 몸과 마음을 만드는 질료이며, 에너지의 원천이며, 자기 조직하며, 생성 진화하면서 심신(心身)이라는 분신에 땃줄을 드리운 우주적 어머니이다. 양자역학의 관점을 좀 더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초양자장은 우리 안에 내재된 신성과 우주적 신성을 원형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는 홀로그램 우주의 원천이라고 해도 될 듯 싶다.

그러나 기(氣)로서의 생명체의 마음은 신(神)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되지 않는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주역의 이치처럼, 그리고 연금술사들의 제의와 같은 마음가짐이 실험의 결과에 미치는 작용처럼 마음의 작용이 미래와 과거의 결과까지도 바꿀 수 있다. 마음이 정보 에너지에 미치는 작용의 영향력을 신뢰할 수 있는 유명한 실험으로 1801년 토마스 영(Thomas Young)의 겹 싹 실험을 들 수 있다. 한 개의 싹만을 열어 빛을 통과시킬 때는 원처럼 퍼져나가던 전자가 두 개의 싹으로 통과시키자 서로 간섭을 일으켜서 파동을 그리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전자가 입자이며 파동임을 증명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 개의 구멍을 통과하는 전자가 파동의 어느 위치로 가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레이저로 표시하자 이번에는 전자의 파동 특성은 없어지고 입자 특성만 나타났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전자가 의식적으로 알고서 입자처럼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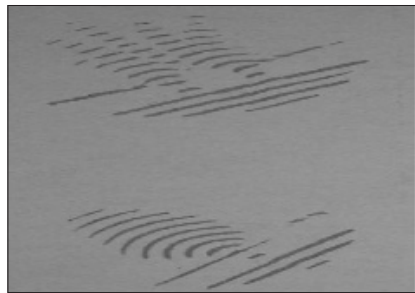



그림7. 싹이 하나일 때는 입자처럼 퍼져나가던 전자가 두 개의 싹으로 내보내자 파동 특성을 보이고 있다. (양자의 세계 대영사 1993)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실험은 관찰자로서의 육체와 마음이 정보 에너지장의 결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관찰자 효과는 바로 마음의 의도에서 나타나는데 이러한 마음의 의도를 기공 양생학에서는 의념이라고 한다. 강한 마음의 의도는 기도에서와 같은 간절함이 있으며 또한 정신적 트랜스 상태와 육체적인 특이 감각을 동반한다. 단전(丹田)이나 차크라가 각성되는 순간의 경험은 체험자 당사자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경지의 초월 상태이다. 예로부터 신(神)의 마음을 움직이는 인간의 지극한 마음상태를 신명(神明)이라 하였으며 이는 인간의 마음이 신(神)의 지극한 지경에 통전되었을 때를 일컫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보에너지 의학의 치유적 메카니즘은 결국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기(氣;에너지), 즉 마음이 정보를 통하여 정(精)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정보에 닿음으로 신명(神明)적 정보를 받아 육체를 치료하는 것이다. 다시 강길전 교수의 정보에너지 의학의 관점으로 돌아오면, 마음이 변성의식을 통하여 초양자장의 정보에 접근하면 확장된 우주의식으로서의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러한 우주심은 강력한 치유력을 발생하는데 이것이 에너지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또 하나의 흥미 있는 실험으로 글렌 라인(Glen Rein)이 정보에너지장의 영역으로 분류한 광자가 비국소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 이들은 아스페(Alain Aspect)와 그의 동료들이었다. 그들은 쌍둥이 광자를 만든 다음에 이 둘을 떼어 놓고 한쪽의 스핀 방향을 바꿀 경우 다른 한쪽 광자의 스핀 방향이 동시에 바뀐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물론 빛이 도착하기 이전에 다른 광자의 스핀 방향이 바뀌는 지가 전제되는 실험이었다. 이 실험을 통하여 공간적 거리라는 물리적 실체가

비국소적이라는 것이 판명되었으며 우주의 공간은 얇을 공유한 하나의 장(field)이라는 인식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홀로그램적 우주에 관찰자의 의도, 즉 에너지 치료사의 의식이 동참하는 것이고 이러한 동참의 지극한 상태는 신명(神明)함으로 표현되며 이때 나타나는 치유의 힘은 기적이 아니고 가장 진보한 과학이다. (다음호에 계속)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김성호** | 한국요가치료협회 회장, 쿤달리니요가 수련원 원장,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 요가심리학 외래교수, 양·한방 병원에서 재활치료, 추나요법, 기 의학 등의 책임자로 20여 년간 역임. 인간의 참된 치유의 길을 찾아 종교, 기공, 단학, 풍물, 살풀이, 탈춤, 택견 등을 다양하게 경험하였으나 쿤달리니 요가에서 인생의 진리를 발견

저자 | **고혜정** | 수원여자대학교 뷰티테라피학과 교수